

“디지털 시대 최적화된 공영미디어로 나아갑시다”

양승동 제24대 KBS 사장 취임

양승동 KBS 사장이 지난 12일 오전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24대 사장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양 사장은 “뛰어난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민첩하고 역동적인 공영미디어를 만들겠다”며 혁신 의지를 밝혔다.

시청자의 손으로 연임한 첫 KBS 사장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봄, 사상 처음으로 시민자문단을 통해 시청자가 직접 선출한 제23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8개월 정도 전임 사장의 잔여 임기를 수행했다. 그리고 다시금 이사회의 사장 선임 절차와 177명의 시민자문단이 참여한 정책발표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제24대 KBS 사장으로 연임됐다. 시청자가 직접 두 번 뽑은 사장으로서 앞으로 2021년까지 3년간의 임기를 수행한다. 이날 취임식에는 KBS 이사진과 임원, 계열사 사장단, KBS 성평등센터장, KBS 노조 관계자들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신뢰도·영향력·도달률 확대 달성 목표

양승동 사장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언제나 위기 속에 숨어 있다”며 “KBS가 지상파 중심의 공영방송을 넘어 공영미디어로 진화해야 한다”는 비전을 선언했다. 양 사장은 이를 위해 임기 내 달성할 목표 과제로 “KBS가 신뢰도와 영향력에 있어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것”, “지상파 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충분한 도달률을 갖는 것”, “KBS를 최대한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만드는 것” 총 3가지를 제시했다.

내년 상반기 콘텐츠 중심의 조직 개편 예고

양 사장은 이 같은 과제의 전제 조건으로 “콘텐츠 중심의 조직 재편”을 들며 “내년 상반기 전사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라고 예고했다. 직급체계를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취재 제작 인력 총원, 안식년제 활용 등을 통해 “뛰어난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이 집중되는 민첩하고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콘텐츠 제작에는 “과감한 투자”를, 이를 제외한 다른 살림은 최대한 절감한다는 재정운용계획도 전했다. 더불어 “이 같은 혁신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KBS의 주인인 시청자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우리 스스로의 변화”라고 KBS 구성원들을 향해 신뢰를 드러내며 당부했다.



양승동 사장 취임사

“기회는 위기 속에 숨어있다 공영방송을 넘어 공영미디어로”

KBS의 변화는 국민의 요구

KBS 구성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상근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이창현 시청 자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이경호 위원장님, KBS 노동조합 정조인 위원장님, 여러 직능단체 회장님들, KBS 비즈니스, 아트비전 등 계열사 사장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느라 새벽부터 바빴을 지역총국장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무실에서 사내TV로 취임식을 보고 계시는 KBS 구성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저께죠, 임명장을 받고 나서 많은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해주신 말씀은 “이제부터 소신 있게 일해 주세요”였습니다. 지난 8개월은 짧아서 쉽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3년 임기를 갖게 됐으니 큰 그림을 갖고 KBS를 바꿔 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자도 받았습니다. “참 어려운 때지만 헤쳐 나갈 힘과 정당성이 있는 사장이 됐으니 오히려 다행입니다. 사장의 리더십이 반드시 성공해서 방송사에 의미 있는 페이지를 써 주십시오.” KBS 사장을 과거처럼 정권이 개입해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뽑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감을 가져달라. 그 힘으로 KBS의 위기를 헤쳐 나가고 KBS를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꼭 만들어 달라라는 당부였습니다.

지난 두 달간 저는 방금 전 영상에서 보신 시민자문단 정책설명회 그리고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KBS 바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와 야를 떠나서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 KBS의 주인인 국민들은 KBS의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KBS가 확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국면에 와 있습니다. 큰 위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위기 속에 숨어 있다.”

지난 10월 말 세계공영방송 총회가 KBS 주관으로 서울에서 있었죠. BBC, NHK 등 세계 공영방송사 사장들과 공영방송이 닥친 위기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때 BBC의 토니 홀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공영방송의 시대입니다.”

(I profoundly believe that now is our time)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지금은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무한히 넘쳐나는 시점입니다. KBS뉴스와 프로그램도 이제는 그냥 ‘One Of Them’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넘쳐나는데 가짜뉴스는 횡행하고 사회는 오히려 분열돼 갑니다. 콘텐츠가 넘쳐나는데 문화적 다양성은 훼손되고 지역성은 소멸해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진솔한 모습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공영방송이 더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토니 홀 사장은 공영방송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공영방송에게 기회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콘텐츠 중심의 조직 개편

KBS 구성원 여러분!

저는 저와 KBS 구성원들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볼 수 있고 그 기회를 잡을 준비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의 위기 국면은 반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는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입니다. 공익적 콘텐츠와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책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KBS에게 부여된 미션, 사명입니다. KBS를 통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알 수 있고 KBS를 통해 희망과 위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직업인으로서 우리 자긍심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보람을 더 크게 느끼고 우리가 받는 임금이 더욱 소중해지려면 우리가 KBS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년 KBS 사장으로서 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는 KBS가 신뢰도와 영향력에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뉴스와 프로그램 등 KBS의 콘텐츠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때 가능한 목표입니다.

둘째는 KBS가 지상파뿐 아니라 온라인과 모바일 등에서도 충분한 도달률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는 KBS가 지상파 중심의 공영방송 개념을 넘어 공영미디어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KBS의 콘텐츠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면 KBS의 신뢰도와 영향력도 상승할 수 없습니다. 둘 사이는 동전의 양면 관계입니다. 도달률이 낮으면 신뢰도와 영향력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보적 신뢰도와 영향력 그리고 충분한 도달률! 너무 버거운 목표일까요? 저는 분명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목표는 우리 조직을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만들고 인력과 예산도 이에 맞게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인력, 자원 모두 콘텐츠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콘텐츠 중심의 전사적인 조직개편을 시행하겠습니다. 뛰어난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이 집중되는,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민첩하고 역동적인 공영미디어를 만들겠습니다.

인력 운용의 경우 일과 실무 중심의 방향으로 직급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단순히 상위직급이어서 우대받는 게 아니라 전문가여서 대우 받도록 할 것입니다. 취재제작 인력은 꾸준히 충원하되 동시에 안식년제, 명예 퇴직제 등을 활용해 조직에 역동성을 불어 넣겠습니다. 아울러 경륜 있는 시니어 직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전략의 경우 콘텐츠 경쟁력을 올려서 광고와 판매 수익을 늘리고 이를 다시 콘텐츠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창의적이며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예능

과 드라마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하되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취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KBS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의 중요한 축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KBS는 재정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적지 않은 규모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상파 광고수입이 수년째 급격히 감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콘텐츠 제작비를 제외한 다른 살림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올해 간부들 업무추진비를 깎고 관행적으로 해 오던 사업을 줄여 200억을 긴축했는데요. 이 같은 효율화, 내년에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유휴 자산도 적극 매각하겠습니다.

위기 극복 위해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KBS 구성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중심으로 조직을 바꾸고 인력과 재원을 운용하려면 그리고 이를 위해 긴축하려면 진통이 수반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KBS 구성원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혁신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익숙해진 습관, 몸에 밴 관행과 때로 과감히 결별하지 않는다면 혁신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지상파 독과점 시대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변화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은 더욱 클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힘겨운 시간을 잘 보내고 혁신할 수 있다면 수십 년째 동결된 수신료도 현실화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달라질 수 있다면 KBS는 '생존' 차원을 넘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첫 발을 뗐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제작 자율성이 크게 강화되면서 KBS 뉴스와 프로그램이 괄목할 성과를 보였습니다. 엇그제 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언론학자 430명에게 물어본 겁니다. '가장 신뢰받는 미디어' 부분에서 KBS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를 달성했고 작년엔 8위권 밖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입니다. KBS 구성원들에게 용기를 주는 지표입니다.

사내외의 불합리와 차별을 개선하는 일 또한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성평등센터가 출범했고 정규직 256명의 일반직화에도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외주상생도 KBS가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견인해 간다는 생각으로 앞장서서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일부 논란으로 숨고르기를 해야 했지만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낼 것입니다.

앞으로 3년, 각 지역에 가장 특화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KBS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역국의 조직과 인력, 예산도 재편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국 총괄 임원직을 신설해 지역국이 슈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중심의 공영방송에서 공영미디어로 진화해 가기 위한 인력과 예산도 3개년 계획 아래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공적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상파 및 KBS를 묶어 두고 있는 차별적 규제를 철폐하는데 전사적 역량을 모아 가고 있습니다.

다함께 'KBS의 시대' 만들어 나가자

KBS 구성원 여러분!
저는 KBS를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 만들고 미디어 급변 시대에 지상파를 넘어 '공영 미디어'로 거듭나게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개월은 가능성을 확인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제23대 사장 취임식에서 이렇게 약속드렸습니다. "KBS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주신 봄, 꽃피우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게 KBS를 바꿔 가겠습니다.

끝으로故 신영복 선생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더 단단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10년 우리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혹독한 시절에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과거 10여년 동안 KBS 내부에 많은 갈등과 파행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갈등과 파행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면 진정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KBS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읍시다. 이제 다함께 'KBS의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앞으로 3년, 늘 현장에 함께 있는 사장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귀를 열고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KBS 한국방송 사장 양승동

'새 출발, 새 얼굴'...연봉직 신입사원 입사식



기쁨을 누리게 됐다. 연봉직 신입사원들은 입사식 날부터 닷새간 인재개발원 연수를 받게 되고 12월 17일 부서 배치될 예정이다.

열린 생각과 진취적 비전 강조

이날 입사식에는 양승동 KBS 사장과 임원진들이 다수 참석해 축하의 자리를 함께했다. 양 사장은 신입사원 임명장 수여와 더불어 "극심한 취업난 속에 KBS의 가족이 되기까지 여러분의 노력이 각별했을 것"이라며 환영사를 시작했다. 이어 "KBS의 주인은 시청자"임을 강조하며 "KBS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품위를 잊지 말 것"과 "미디어 무한 경쟁 시대에 항상 열린 생각과 진취적 비전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또 "선배들의 소중한 경륜과 지식을 존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배우길 바란다"며 KBS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사원에게 진심 어린 당부와 격려의 말도 전했다.

연일 이어지던 북극 한파가 한풀 꺾인 지난 10일, KBS의 새 출발을 함께 할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했다. 바로 내년부터 KBS의 취재 제작 현장에서 일반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될 34명의 연봉직 신입사원들이다. 이날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이들에 대한 입사식이 진행됐다. 연봉직 사원을 대규모로 공개 채용한 것은 KBS 사상 최초였다. 서류-필기-면접 전형을 거쳐 20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뚫고 수도권 18명, 지역권 16명이 최종 합격의

2018년을 빛낸 스타들 한자리에서 미리 보는 연말 시상식

다사다난했던 2018년, 올 한 해 동안 KBS를 다채롭게 해줬던 프로그램들과 그 속에서 빛났던 스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연말 시상식을 미리 알아보자.

2018 KBS 가요대축제



2018년의 대미를 장식할 가요계 '대 환상 파티'가 시작된다! 28일 밤 8시 30분 1부를 시작으로 60분씩 3부로 방송 예정인 <2018 KBS 가요대축제>는 '대 환상 파티' 라는 주제로 시청자들의 환상을 충족 시켜줄 무대와 가수들의 다채로운 음악 세상을 보여줄 버라이어티한 무대를 선보인다. 글로벌 인기를 자랑하는 K-POP 최고 인기 아이돌 그룹 EXO 찬열, 방탄소년단 진, 트와이스 다현이 MC로 나선다. <2018 KBS 가요대축제>에는 올 한 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EXO,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레드벨벳, Wanna One, GOT7, 선미, 세븐틴, 뉴이스트W, 몬스타엑스, AOA, 에이핑크 등 2018년 동안 <뮤직뱅크>에서 1위를 수상한 영광의 주역들과 화려한 스페셜 무대를 빛내줄 인기 가수들이 총출동해 환상적인 무대를 보여줄 예정이다.

▶12월 28일 금요일 밤 8시 30분, 2TV

2018 KBS 연기대상



<2018 KBS 연기대상>은 연기대상 32주년을 맞이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과 공감의 장을 그려낼 예정이다. 올 한 해 동안 정통성과 권위를 갖추면서도 실험과 도전에 그치지 않고 변화를 이끌어낸 KBS 드라마들이 그 주역이다. 2018년 한 해 동안 KBS는 <저글러스>, <라디오 로맨스>, <추리의 여왕2>, <슈츠> 등 9편의 미니시리즈를 선보였고, <흑기사>, <우리가 만난 기적> 등 3편의 중편드라마, <같이 살래요>, <하나뿐인 내편>의 2편의 장편드라마도 방영했다. 그리고 <TV 소설 파도야>, <인형의 집>, <내일도 맑음> 등 6편의 일일드라마, 드라마 스페셜 단막극 10편, 드라마 스페셜 연작 <To, Jenny>, <옥란면옥> 등 3편을 방송하며 다사다난하고 바쁜 한 해를 보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명품 연기 배우들과 제작진들의 이야기가 2018년의 마지막 날 펼쳐질 예정이다.

▶12월 31일 월요일 밤 8시 30분, 2TV

GAG CONCERT



2018 KBS 연예대상

12월의 22번째 밤은 KBS 프로그램 속 예능인들이 책임진다. 9시 20분 1부를 시작으로 60분씩 3부로 방송 예정인 <2018 KBS 연예대상>은 막강 예능인들의 재치와 웃음으로 180분간 눈을 땔 수 없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MC로는 신현준, 윤시윤, 설현이 확정됐다. 올 한해 인기를 끌었던 <1박 2일 시즌3>, <개그콘서트>, <불후의 명곡>, <살림남 시즌2>, <슈퍼맨이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4> 등 다양한 소재의 매력적인 예능 프로그램들 중 현장투표와 사전투표를 합쳐서 최고의 프로그램이 선발될 예정이다. 신선한 조합의 선남선녀 MC 3명의 호흡과 올 한 해를 가장 빛낸 '최고의 프로그램 상', '대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하다면 <2018 KBS 연예대상>에서 확인해보자.

▶12월 22일 토요일 밤 9시 20분, 2TV



독보적 신뢰 KBS 뉴스가 움직인다

뉴스는 방송사의 간판이자 얼굴로 불린다. <KBS 뉴스9>(이하 <뉴스9>)는 대한민국 대표 뉴스이자 공영방송 KBS의 메인 뉴스로서 수십 년간 국내외 주요 사건들을 시청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왔다. 그런 간판 뉴스 프로그램이 <KBS 뉴스7>(이하 <뉴스7>)과 함께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형식과 포맷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간다.



<뉴스9> 새 앵커 엄경철 기자·이각경 아나운서

“KBS 9시 뉴스의 중심은 한국사회와 시민”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워진 KBS <뉴스9>에서 앵커를 맡게 된 소감?

엄경철 마음이 무겁다. <뉴스9> 앵커를 잘할 수 있을지 자문해보면 솔직히 자신 없다. 하지만 앵커를 자신감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뉴스를 다 시 살려야 한다는,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선후배 기자들과 KBS 구성원들의 열망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다. 좋은 출발점이 돼서 더 나은 누군가가 뒤를 잇고 작은 역사가 되고 그래서 신뢰의 빛이 깃들었으면 좋겠다.

이각경 과분하고 감사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전면적으로 <뉴스9>의 형태가 크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낯설고 어렵지 않도록 이끌어야 할 앵커의 역할에 고민이 크다

치열해진 뉴스 콘텐츠 경쟁 속에서 KBS <뉴스9>만의 강점은?

엄경철 뉴스의 영역은 지상파 3사와 뉴스 전문 채널, 종편까지 가세한 무한 경쟁에 돌입해있다. 과거 KBS만이 특별하게 잘하는 탐사보도 영역이 있었으나 이미 다른 언론사들도 상향 평준화돼버렸다. 하지만 새로운 뉴스 체제가 출범한 후 통합뉴스룸 기자들의 취재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느낀다. <뉴스9>만의 강점은 타사와는 다른 기획 능력과 끈질김이라고 본다. 최근 사학비리, 교정비리, 재건축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언젠가 크게 빛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각경 <뉴스9>와 우리 국민이 함께한 긴 역사만큼 친숙함은 강하고 신뢰도 역시 회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뉴스의 흐름과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깊이를 새로워질 KBS 뉴스에 더해보고 싶다. 그 가능성이 <뉴스9>의 또 다른 강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엄경철 어느 날 갑자기 9시 뉴스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뉴스는 현실의 종속 변수이기에 서서히 달라질 수 있을 뿐이다. 9시 뉴스의 변화, 달라짐의 지향점은 한국사회의 성숙과 발전이다. 사회적 기구인 9시 뉴스는 그 수단으로서만 의미 있다고 본다. KBS를 위한, KBS 구성원을 위한 9시 뉴스가 아니다. 9시 뉴스의 중심은 한국사회와 시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각경 밀림처럼 빽빽한 뉴스들 속에서 시청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새로워질 <뉴스9>가 든든한 도우미 역할이 됐으면 한다. 아울러 그냥 뉴스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참신한 뉴스 프로그램을 기대해주셨으면 좋겠다.

다매체·다채널 시대...뉴스 경쟁력 강화 요구 ↑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은 KBS 뉴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몇 달간 ‘뉴스개선 태스크포스’(이하 뉴스개선 TF)를 꾸려 운영해왔다.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미디어 매체 환경과 다채널 간의 뉴스 경쟁 속에서 지금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대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내외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뉴스개선 TF에는 김태선 통합뉴스룸 국장이 단장을 맡았고 부장 및 팀장급 기자, 평기자 대표인 기자협회장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뉴스9>·<뉴스7>...저녁 뉴스 양대 체제 구축

이번 뉴스 변화의 핵심은 <뉴스9> 단일 중심 체제에서 <뉴스9>와 <뉴스7> 양대 체제로 저녁 뉴스 시간대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뉴스7>는 ‘1시간 빠른 정통 종합 뉴스’로 격상한다. 현재 35분 편성에서 5분가량 시간이 늘어나고 타사 8시 뉴스보다 1시간 빨리 그날 일어난 다양한 소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뉴스9>는 ‘1시간 더 깊고 친절한 심층 뉴스’로 재정립한다. 백화점식 뉴스에서 벗어나 가장 핵심적인 이슈들을 골라서 그 맥락을 짚어보고 한층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 가지 주제를 여러 개의 리포트로 집중 조명하는 ‘블록화’ 뉴스 콘텐츠를 매일 3개 이상 전달하고 현장 중계차 연결과 앵커와의 대담 등 여러 가지 유연한 형태로 블록을 꾸며서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는 뉴스로 구성될 예정이다.

2019년 1월 1일, ‘KBS 뉴스’ 얼굴도 바뀐다

뉴스의 얼굴인 앵커 역시 이번 개편의 지향점과 시청자들의 달라진 생활 리듬에 맞춰 새롭게 바뀐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평일 뉴스 앵커가 진행하고 주말 뉴스 강화를 위해 금, 토, 일요일에는 주말 뉴스 앵커가 전담한다. 평일 <뉴스9> 앵커로는 엄경철 기자와 이각경 아나운서가 낙점돼 신뢰성과 젊은 감각을 겸비한 뉴스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중 뉴스의 흐름을 이어갈 주말 <뉴스9> 앵커에는 김태욱 기자와 박소현 아나운서가 선정됐다. <뉴스7>은 박도원 아나운서와 박소현 아나운서가 맡게 된다.

Interview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김태선 국장

“달라진 시청자 수요 반영... 심층성·다양성 강화에 초점”



신뢰도와 공영성 확보가 KBS 뉴스 지향점

KBS 뉴스의 지향점은 시청자의 신뢰도와 공영성 확보이다. 이런 기본적인 사명을 발판으로 내년도에는 두 가지 비전에 중점을 두고 시청자에게 다가가려고 한다. 첫 번째는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한반도 정세와 평화를 생각하는 뉴스. 두 번째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뉴스다. 이번 뉴스 개선을 통해 이 같은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시청자들도 달라진 KBS 뉴스를 바로 느낄 수 있도록 보도본부 구성원들과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강화된 심층 탐사 적극 활용

지난 4월 개편 이후 보도본부에선 K 시리즈라고 명명한 끈질긴 K, 팩트체크 K, 현장 K 등 보다 강화된 탐사 기획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이 내용 역시 유기적으로 9시 뉴스에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공적 가치 추구’ KBS만의 경쟁력

KBS는 사적 이익 대신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공영 방송이다. 젊은 기자부터 수십 년 경력의 기자까지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임하기 때문에 외부 간섭 등에 좌우되지 않는 강점이 있다고 본다. 물론 여러 우려와 부족함도 있지만 그런 저력을 바탕으로 늘 잘 헤쳐 나갔다. 미디어 지형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자 도전이지만 KBS만의 경쟁력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경기나 큰 이벤트만 중계한다’는 ‘중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 프로그램이 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사가 없어도, 소소한 ‘사람 사는 이야기’를 스포츠 경기처럼 ‘중계’하는 창원방송총국의 <별의별 중계>. 8회에 방송된 ‘전국노래자랑 예심’편 시청률이 11%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됐다. KBS 사보가 <별의별 중계>의 제작진 3인방, 창원 총국의 김윤정, 김호문, 서진교 PD를 만났다.

<별의별 중계>는... ‘사람 냄새’ 풍기는 ‘웃음’ 중계 프로그램

9월 12일 첫 방송된 <별의별 중계>는 파업 이후 ‘KBS를 국민에게 돌려주자’라는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뜻으로 기획됐다. 경남 지역민들의 진솔한 사연과 일상이 중계 형식을 통해 펼쳐진다. 지역 특색을 살린 리포터의 맛깔나는 사투리 진행은 재미를 더한다. 그동안 세차장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미용실, 팔씨름, 재난 방송, 전국노래자랑 1차 예심 현장 등을 다뤘다. 지역민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었던 미용실 편은 경상남도 진해에서 46년간 꾸준히 자리를 지켜온 미용실을 배경으로 소소한 일상이 중계됐다. 이곳에서 미용실은 단순히 머리 스타일에 변화를 주기 위한 곳이 아닌,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음악을 듣고 춤을 추기도 하는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었다. 그들이 소소한 일상 속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웃음뿐 아니라 소소한 위로까지 받게 된다. 이렇게 <별의별 중계>는 생활 속 유머를 유쾌하게 풀어내고, 그들의 삶의 현장을 중계해 ‘사람 냄새’까지 풀풀 풍기고 있다.

‘재난방송주관방송사’ 역할 제대로 해 낸 ‘재난 체험 중계’

단순히 사람 사는 모습만 전하는 게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다. ‘재난 체험 중계’ 편이 대표적이다.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재난을 대비하는 법을 중계해 보고 싶었다는 서진교PD는 이같은 재난 체험이 실제 재난에서 목숨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재난 체험’을 중계했다고 설명했다. 중계가 이뤄졌던 ‘부산 119 안전체험관’은 지진과 지하철·노래방 화재 등을 실제 상황처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어서 실감 나는 중계가 가능했다. 특히 화재 체험 등에서는 연기 냄새마저 실제와 똑같아 출연자는 물론 제작진조차 당황할 정도였다고. 또한 방송 후 재난 대비 요령과 완강기 사용법 등도 재밌고 쉽게 전달됐다는 시청자 반응이 많았다고 한다. 서PD는 “‘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의 KBS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라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부산 119 체험관’에 특히 고마움을 전했다.

지역민들과 스킨십을 더 자주, 더 가깝게

물론 모든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지역국이기에 리소스와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다른 물리적인 조건들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영방송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가진 리소스와 재원을 충분히 활용해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제작진의 생각이다. 김윤정 PD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리소스들을 그동안 지역국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현장에서 활용을 한다면 그것이 곧 ‘지역민들과 소통의 장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작진들은 <별의별 중계>가 시청자들에게 방송사가 가진 ‘중계’라는 재능을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인 만큼 시청자들이 KBS가 가진 것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제작진이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되도록 많이 노출시키겠다는 다짐도 함께 전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별의별 중계>가 되길...

현재 <별의별 중계>는 매주 수요일 경남 지역에 방송됨과 동시에 my K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으며 유튜브와 페이스북에도 업로드되고 있다. 또한 수요일 낮 시간을 통해 전국적으로도 방송되고 있다. 방송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별의별 중계> 제작진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간대에 편성돼 전국적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별의별 중계를 할 <별의별 중계>



김윤정 PD

매일같이 쏟아지는 각종 콘텐츠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면서 그걸 중계해보고 싶어졌다. 사람들이 읽어내는 각종 사안들을 한 걸음 더 밖에서 보는 댓글 중계. 또 다른 포맷의 시사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호문 PD

도의회에서 열리는 도정 회의를 중계해보고 싶다. 의원들이 하는 딱딱한 주제의 도정회의를 중계로 재밌게 풀어서 도민들이 가볍게 접할 수도 있고, 도정을 우리가 직접 감시한다는 공익성도 함께 잡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서진교 PD

사실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도 말하자면 ‘남북 대학생들의 미팅 모습’을 중계해보고 싶다. 남북 간 다른 이념과 문화 속에서 살아온 남북 젊은 남녀를 통해 남북 간 화합된 모습을 그려보고 싶다. 또한 어떤 차이가 있는 지도 함께 보여주고 싶다.

KBS 정년퇴임

노고에 감사드리고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44명의 사우들이 12월 31일자로 정년퇴임을 맞는다.

KBS는 12월 20일 10시, 본관 2층 시청자광장에서 2018년 4분기 정년퇴임식을 열고 선배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할 예정이다.

2018년 4분기 정년퇴임자 44명 명단

성명	부서명	성명	부서명	성명	부서명	성명	부서명
오영철	인재개발원 인재개발부	김민수	보도본부 영상취재부	이숙자	시청자본부 안전관리	최무열	대구방송총국 보도국
이은미	심의실 심의부	구수환	제작본부 TV프로덕션3	김재연	시청자본부 경영정보부	남인식	대구방송총국 시청자서비스국
김성수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부	최태엽	제작본부 TV프로덕션4	최재환	시청자본부 전력운영부	김용열	광주방송총국 기술국
우동혁	전략기획실 방송문화연구부	김상우	제작본부 TV프로덕션5	정해석	부산방송총국	조인곤	광주방송총국 시청자서비스국
임대배	방송본부 1TV제작투자	한혜련	제작본부 R프로덕션1	서명환	부산방송총국 편성제작국	노미선	전주방송총국 편성제작국
윤종배	방송본부 1TV편성부	정혜실	제작본부 R프로덕션3	김흥배	부산방송총국 보도국	이해경	대전방송총국 편성제작국
동중우	방송본부 영상제작1	박귀병	네트워크센터 남산송신센터	배도업	부산방송총국 보도국	최학석	대전방송총국 편성제작국
최재학	방송본부 영상제작1	김택환	제작기술본부 기술운영부	맹성수	부산방송총국 시청자서비스국	최경수	청주방송총국 편성제작국
양기성	방송본부 영상제작2	김국원	시청자본부 경영정보부	정용조	울산방송국	김두희	청주방송총국 기술국
유신열	미래사업본부 인프라관리부	김남섭	시청자본부 총무부	김두식	창원방송총국 기술국	방호근	강릉방송국
정창훈	보도본부 라디오뉴스제작부	윤혜숙	시청자본부 후생운영부	이봉재	창원방송총국 기술국	최종림	원주방송국

대구방송총국 <기억, 마주서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 수상

대구방송총국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기억, 마주서다>가 국제엠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했다. <기억, 마주서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의 이야기와 항일가문 몰락사 등 지난 100년 동안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10편으로 정리해 그 의미를 되새긴 다큐 프로그램으로 약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새로운 과거사를 조명함으로써 지역 언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과를 나타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올해 21회 짝을 맞는 국제엠네스티 언론상은 인권 증진에 기여한 국내 언론에 주는 상으로 <기억, 마주서다>를 비롯해 총 7편이 선정됐다.



KBS-세종학당재단과 업무협약

KBS와 세종학당 재단은 해외에 한 국어와 한국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4일 체결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BS는 세계 56개국 172곳의 세종학당에 KBS WORLD 채널과 KBS WORLD 24 채널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해외의 세종학당은 내년부터 KBS 해외 채널의 고품격 콘텐츠를 한국어 교육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K-POP 월드 페스티벌>, <퀴즈 온 코리아>, <K-RUSH>, <서울 인스타> 등 한류 특화 프로그램들을 제작, 방송하며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KBS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해외 보급에 기여하고 공공서비스미디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2018 KBS 라디오 연기대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상	부문	수상자	작품명
2018 KBS 라디오 연기대상	최우수 남자 연기상	성완경	라디오 극장 <고스트 라이터즈>, <스페이스 보이>
	최우수 여자 연기상	소연, 박지윤(공동수상)	KBS 무대 <본것만 믿는다>, 라디오 극장 <수요일에 하자>
	신인 남자 연기상	박주광	KBS 무대 <핑크색 매니큐어>, <와이파이 삼국지>
	신인 여자 연기상	최정윤	KBS 무대 <천년호텔>, 소설극장 <노란 잠수함>
	특별상	故 김일	
	공로상	효과감독 장찬희, 유영환(공동수상)	

'2018 자율연구회' 시상식

최우수상
Pro-Mera PD촬영을 위한 매뉴얼 제작
우수상
Big & Deep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KBS REVIEW 2.0) 뉴스 이미지 플랫폼 연구회 뉴스별 이미지 가이드라인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분석, 웹 플랫폼 제작
장려상
Audio Restoration 연구팀 시사·보도 프로그램 음향 분석 및 음질향상 연구 UB 연구회 통일에 대비해 북한방송의 분석 및 통일방송에 적합한 파일럿 프로그램 기획

웬 투 쓰리! 앤 차 차 차!



KBS 월화드라마 땀보걸즈

성적은 9등급이지만, 땀 스포츠는 잘하고 싶다!

댄스 스포츠 신인들의 유쾌한 반란

성적은 '9등급' 이지만 '땀 스포츠'는 정말 잘 하고 싶다! 조선업의 호황이 끝나며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도시 '거제'를 배경으로 꿈과 희망을 찾기 위해 땀 스포츠를 추는 6명의 아이들의 유쾌한 성장기를 그려 지난해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KBS 스페셜-땀보걸즈>가 드라마로 새롭게 돌아와 울거울 안방극장 공략에 나섰다. 10대 시절 유일한 목표는 거제 탈출, 촉망받는 영화감독이 되는 게 꿈인 김시은(박세완 분)과 어린 시절 할머니 손에서 자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여기는 박혜진(이주영 분), 자칭 여신 양나영(주해은 분), 한때 유도 유망주였지만 부상을 당해 좌절감에 빠진 이예지(신도현 분), 공부하는 게 제일 싫지만 시험기간은 제일 좋아하는 김도연(이유미 분)과 심영지(김수현 분), '땀뽀반' 수업을 지켜보며 남몰래 땀 스포츠 실력을 키워가는 권승찬(장동윤 분) 등 매력 넘치는 신인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여 신선함과 새로운 활약을 기대하게 한다. 이들 외에도 "춤에서 중요한 건 흥! 뽀!"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게 땀 스포츠를 가르치는 춤 선생님이규호(김갑수 분), 한때 조선소 본사 용접공이었으나 불황과 함께 정리해고를 당한 시은 어머니 박미영(김선영 분), 조선소 인사담당 승찬 아버지(장현성 분) 등 베테랑 배우들이 '땀뽀반'의 선생님과 부모님 역할을 맡아 묵직한 연기로 중심을 잡고 있다. 신선한 캐스팅을 통해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하며 최고의 신인 등용문으로 불리는 KBS가 또 한 번의 스타 탄생을 예고하며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청정 힐링 성장 드라마 <땀보걸즈>

학교가 배경이지만 성적과 입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취업이나 대학 진학에는 아무 소용 없는지 모르는 '댄스 스포츠'라는 독특한 소재로 열여덟 고등학생들의 성장을 담은 <땀보걸즈>. 스텝을 하나도 몰랐던 아이들이 조금씩 안무를 맞춰가고 실수 없는 공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그리고 넘어지고 깨지기 쉬운 열여덟의 시간을 지나 무사히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 조선업의 쇠락과 함께 불어닥친 구조조정으로 힘겨운 삶을 버텨내고 있는 어른들의 이야기는 드라마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며 현실적 공감과 몽클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아름다운 거제의 풍광을 배경으로 불안을 꺼안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의 꾸밈없는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새 월화 드라마 <땀보걸즈>는 <공주의 남자>, <스파이>, <함부로 애틋하게> 등에서 탁월한 연출력을 인정받은 박현석 PD와 <드라마 스페셜 - 빨간 선생님>, <혼자 추는 왈츠>등 오래도록 회자되는 명품 단막극을 집필했던 권해지 작가가 의기투합하여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매주 월, 화요일 밤 10시, 2TV